2021년 8월 1일[제 41권 31호]

TWO WINGS 1500 VISION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9장	사도신경 (카리스찬양팀) 찬양 주의 사랑을	(노피어찬양팀) 찬양 주 보혈 날 정결케
고백과 헌신	교독문 31. 시편 68편 신앙고백 찬송 88장 기도 이미선 권사	기도 이성근 장로 성도의 교제	기도 김은숙 간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계시록 6장 1~17절 (신약 405) **재앙 속에 보이는 큰 위로**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546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은혜 축도 담임목사	봉헌 원하고 바라고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고후 6:1~2
열정이 빚어내는 승리
설교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19:30

목장별 모임과 나눔

8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라종선 집사
축제예배 임영미 집사
젊은예배 최용환 집사

[봉헌]

전통예배 김문숙 이정은
축제예배 김선곤 라종선
강미령 김은희 임영미
젊은예배 김은숙 박해인

9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남순자 노창선

[젊은예배]

박진경 유홍주

[축제예배]

임경진 한덕수
김선 김순열 안선명

오늘의 말씀

재앙 속에 보이는 큰 위로

[요한계시록 6장 1~17절]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　　)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재앙 속에서 (　　)의 진노가 주는 (　　)를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주는 나의 하나님

[호세아 2:14~23]

W
WELCOME
환 영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시다.

W
WORD
말 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골라 나눕시다.

- 직장 / 주택 / 자동차 / 자녀 / 청결 / 외모 / 취미생활 / 운동 / 친구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14절)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15절)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17절)

2.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18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묘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19~20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23절)

3.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위로하시는 하나님(14절).
   -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15절).
   - 내 삶에 모든 우상이나 악한 것을 치워버리시는 분(17절).
   -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18절).
   - 은총을 베푸시는 분(19절).
   - 언제나 한결 같으신 분(20절).
   -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는 분(23절).
   - 기타

4.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실천해야 할 것을 정한 후 서로 도고기도 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4) 축복기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1)

- 여성C-1목장 강애진 목자 -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교회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강애진셀리더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살때부터 교회문턱을 넘나들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줄기차게 다녔고, 대학교 첫 등굣길에 CCC 캠퍼스아침기도회를 구경하다가 그날부터 CCC맨이 되어 제자훈련 전도훈련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단지 꿈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경험한 것 많고 배운 것 많지만 그 지식과 경험으로 오히려 율법주의와 교만함에 빠져 사람들을 정죄하며, 정작 나 자신은 마귀의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혹여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잔뜩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역곡에서 신혼집을 구하면서 우리 예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가는 날이 많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에 한발, 교회에 한발을 걸치고 사는 삼류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목사님이신 강경원 원로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위해서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든지 평신도 사역자 세우기등 여려가지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셨습니다. 저는 ccc활동이 도움이 되어서 그런지 훈련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은혜도 받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든 중 어느 날 당시 강도사님이셨던 강승신 강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주 동안 어떤 모임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집을 그 모임의 장소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되도록이면 꼭 참석하는 하겠다며 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은 모임을 하는 동안 빠져서도 안되고 시간이나 장소를 옮길수도 없다며 진지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상 천지에 그런 모임은 또 무슨 모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알 수는 없는 강도사님의 진지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운영하던 가게에 알바를 구해놓고 그 모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제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킨 행복모임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은 몇 명의 셀리더들과 함께 저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복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비전은 마치 불같이 제 마음에 떨어져 불붙었습니다, 그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모호한 믿음의 문제와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해도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명의 충격,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집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복음에 대한 충격, 무엇보다 구원이 모호했던 저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된 사명에 대한 도전과 충격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 저는 여태껏 교회 다니면서 왜 이리

오랫동안 방황하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을까 하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어서 그냥 웃고 다녔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눈물나게 회개해야하고, 회개하면 뭔가 마음은 개운해지지만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눈물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 능력은 없었고 늘 죄인이 되어서 죄에 짓눌려서 마귀의 참소를 받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종교생활이었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양육반 과정은 신앙의 기초를 다루었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의무와 율법으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닌, 은혜와 감격의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양육과정 중 강도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기도수첩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불가능한 기도를 쓰게 되었고,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지우개로 지우다가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손해 볼거 없으니 일단 기도 해보자며 가게에 밀려있는 월세 2개월치를 내게해주세요라고 썼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안들어주셔도 딱히 서운할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에 2개월치 월세를 손님 한분을 통해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름이돋았습니다.

제가 머리로만 알고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지 아버지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닛시 하나님 등등 제가 들어봤던 하나님을 다 찾아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은 저의 믿음에 힘을 더해주었고, 어떤 상황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한 분기의 사역이 끝나고 새롭게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리더들에게서 지난분기에 배운대로 행복모임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교회나오세요 라는 말이 아닌 행복모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행복모임리더로 복음을 선포하는 첫 시간 저는 본당에 와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로 인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나, 복음에 흠이 나면 어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배운대로 몇 번이나 수도 없이 반복하며 토시하나 까지 그대로 목사님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행복모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신대로 치유가 나타나고, 기도받은 사람, 기도한 사람이 둘 다 깜작 놀란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대적하는 기도는 저같이 성경공부에 길들여진 지성적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

거대한 반석 같은 믿음의 기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의 바로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황금방패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에단이 수치와 뼈아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시 89:).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복을 주셨던 다윗 왕조의 몰락을 보며「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지난 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종합평가하면 결코 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나 둘, 꼭 마음에 드시는 것만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생님이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천사일 때만 보고 선생님은 악마일 때만 봅니다." 하나님도 내가 악한일 할 때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할 때 보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성실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성실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동맹을 하셨습니다.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한번 맺으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하나 뿐인 줄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개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비참함을 보고 기도합니다.

평생 이루어 놓은 기업이나 업적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기대하고 혼신의 힘을 기우렸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지난 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비참하게 무너져 망해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소유물이 약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디있으며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 이어서 그는 “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민족에게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회복시켜 주소서.” 현실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작은 어려움도 큰 기도의 제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한척하고 큰 어려움도 작은 척하면 큰 일 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한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시 89:46).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하고 긴데 인생은 무기력하고 짧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인생의 바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시 89:49). 이것이 성도의 기도근거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비참함과 어려움 앞에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과 좌절로 마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어서 어려움 없이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러시아의 최슬기 선교사, 최평안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임영미 집사
– 하반기 양육과 훈련을 준비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 과정부터 양육과 훈련의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소서. 양육자, 훈련생, 준비하며 돕는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주시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 양육자들에게 기름부어 주시고, 양육생들 모두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2. 양나윤 목자
– 코로나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목장식구들이 지혜롭게 모이기에 힘쓰고, 다가오는 훈련과 양육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 지난주에 등록한 이형정 집사 부부가 잘 정착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감사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한달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매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소서.

– 비대면이지만 러브투게더를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집중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양육자가 되게 하소서.

–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주 소식

1. 오늘 공동체 예배 때는 한가족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축가는 여성D-2목장입니다.

2.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성경학교 : 9. 3(금)~5(주일)
   유초등부 성경학교 : 8. 8(주일)~29(주일)
   청소년부 수련회 : 8. 8(주일)~9(월)
   청년공동체 수련회 : 8. 15(주일)~17(화)

3.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주일(8/8)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8월 29일(주일)개강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8시
   (인원이 부족한 반은 폐강가능하고, 다른 반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목요일 오후 8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4. 회복캠프가 8월 28일(토)에, 리더캠프가 8월 21일(토)에 진행됩니다.

5. 2021년 가을사역을 위해 목장에서는 미리 기도하며 행복모임 구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사역선포식은 8월 29일(주일)입니다.

환영합니다

21-27 장재영 집사 (인도자: 양나윤 사모
섬김이 : 김영일 집사)
21-28 이형정 집사 (인도자: 양나윤 사모
섬김이 : 김정화 집사)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 C-1목장 (강애진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윤 목자)
2층 : 여성B-2목장(박현숙 목자)
3층 : 여성A-1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